11

6619

失鄕私民(拉致者)安否探知申告書

가 拉致者의 姓名 洪 來 [illegible]

나 性別 男

다 生年月日 檀紀四二四八年弍月拾日生

라 被拉致者本籍 京畿道水原市仁溪洞八三番地

마 最終現住所 水原市仁溪洞八三番地

바 最終職業 水原劇場映画技師

사 家族代表名 妻 李正順

아 失鄕當時의 場所 및 失鄕(拉致事項)

檀紀四二八三年七月五日 避難을 龍仁郡二東面下篤里에 居住하는 妻家 李箕宗宅으로 避難中 德谷里에서 自衛隊員에 逮捕되어 無數히 毆打 至因하야 事實

을自白하고 避難前에 大韓青年團水原市團部監察部員으로 青年運動한 事實을 自白하야 妻의 父母가 目見한 四日後에 龍仁郡龍仁面金良場里에 있는 內務署로 引渡하야 死亡한 줄로 알았으나 人便에 衣服을 보내라는 通知가 있어서 媤母가 衣服을 持參하야 內務署에 差入한바 不得已 歸家하야 妻(本人)이 再次 衣服을 持參하야 內務署에 差入한바 衣服만은 受取하고 面會를 拒絶當하야 其後에는 某方面으로 引率하야 갔다는 말은 있으나 今日까지 無消息이오니 探知하야 주시옵기 願하옵나이다